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8년도 포어 ◎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 (고후 5:17)

◎ 생활지침 ◎

1. 경건
2. 사랑
3. 절제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새벽에 배우는 “그리스도의 제자도”

내일부터 20일 간 비전2020운동 특별새벽기도회

비전2020운동 특별새벽기도회가 내일부터 시작되어 21일(토)까지 20일간 계속된다. 새벽기도회 시간은 종전과 달리 새벽 5시에 시작하여 6시에 마치게 된다.

이번 특별기도회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제자도”이며 강사는 이종윤 목사이다.

지난 주간에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주제로 허남기 목사(영은교회)를 강사로 모시고 전도특강의 시간을 가졌다.

오늘 I·II·III부 예배 후에는 전도회별로

모여 노방전도를 실시하며 11월 중 각 전도회는 월례회 후에 노방전도를 하게 된다. 이 밖에도 연속기도회, 금요 심야기도회, 동반전도 등 비전2020운동의 행진은 이번 주간에도 계속된다.

운동본부에서는 태신자 카드와 잃은 양 찾기 운동 대상자 명단 접수를 8일(주일)로 마감하기로 하면서 특별히 각 부서와 교구에서 잃은양 찾기 대상자 명단을 빠짐없이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금주의 비전2020운동

▶전도회별 노방전도(1일 주일 I·II·III부 예배 후, 11월 월례회 후)

▶태신자카드 작성 및 제출

▶잃은 양 찾기 대상자 선정 및 명단 제출

▶비전2020특별새벽기도회(2일 - 21일)

시간: 오전5시 - 6시

강사: 이종윤 목사

▶24시간 연속기도회

오전6시 - 오후10시: 연속기도회 참가신청자

철야기도 담당부서	1일(주일)	제1·2권사회
2일(월)	바울5, 에스더5	
3일(화)	요한6, 마리아6	
4일(수)	베드로6, 루디아6	
5일(목)	바울6, 에스더6	
6일(금)	스데반회, 청년부	

▶금요심야기도회(5일)

주력부대: 7·8교구, 마리아전도회, 유아부, 유치부
시온찬양대

▶토요등반전도(7일 오후 3시)

2·7교구: 우면산(예술의 전당 후문 4주차장 앞)

3·11·12교구: 청계산(엠틸 버스종점)

교사기도회

“나를 변화시켜 주소서”



지난 30일(금) 우리 교회 12개교회 학교 교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나를 변화시켜 주소서”라는 주제로 철야기도회를 가졌다.

순례자 컬럼

교회의 힘

교회의 힘은 가견적인 건물이나 물량적인 숫자 또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식, 무력, 경험, 권력과 같은 것들로 쥌 수는 없다.

한국 교회가 이 시대에서 하나의 힘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자랑스럽다기 보다는 오히려 비참한 생각마저 드는 이유가 무엇일까? 교회에 힘이 있다면 그것은 신령한 힘이고, 거룩한 능력이어야 할 것이다. 그와같은 힘은 성령의 거룩한 역사로 얻어지는 힘이고, 기도의 힘이며, 전리되신 복음의

힘이어야 한다. 성령의 권능으로 자신을 새롭게 하고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며, 복음의 능력으로 어둠을 밝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오늘날의 한국 교회가 이 시대에 진정한 힘을 나타낼 수 있다면 주님의 몸으로서의 사명을 바르고 깨끗하게 수행할 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한국 교회에 거룩한 힘을 주실 것을, 그리고 그 힘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자.

11월 행사게시판

일자	행사
1일	성경암송대회(예선) 찬양대 헌신예배
6일	성경암송대회(본선 및 결선)
8일	성경암송대회 시상 및 시범
15일	추수감사찬양예배
16일	목회자신학세미나 14학기 종강
16-19일	제 4학기 성경대학 종강
22일	추수감사절(성찬식) 교회설립 제 7주년 기념일 장로임직식 비전2020승전감사의 날
26일	비전 2020운동 승전보고 새가족환영회(찬양예배 시)

이사야 강해

승리의 노래

이사야 12장 1-6절

사람이 구원을 얻고 구속의 은총을 체험할 때 감사의 노래가 나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모든 성도는 구원받은 확증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1.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는 노래

하나님의 진노는 죄인에게 임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죄를 향해 쏘는 화살처럼 내게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을 진노가 옮겨졌으므로 우리는 그 은총을 찬양하는 것입니다(시30:5).

어린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구원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진노를 모면할 수 있는 어떤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구원이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니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안위하시오니...”(1절).

구원의 은총을 생각하면 감사밖에, 찬송밖에 나올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총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 하나님을 소유한 것을 기뻐하는 노래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게 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흔히 구원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2절). 구원은 하나님께서 내게 부족한 것을 채워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구원이시므로 그를 의뢰하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는 말의 뜻은 하나님은 모든 구원의 저자 즉 구원을 만드신 분이신 것입니다. 영적 구원, 육적 구원, 질병에서의 구원, 생활 속에서의 크고 작은 모든 구원들... 이 모든 구원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원의 원인이 되십니다. 구원의 시작이 하나님이고, 그것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성취케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구원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

분은 바로 구원의 물, 생수입니다(3절).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사41:17-18, 요4:14, 계7:17).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입니다. 물은 곧 구원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죄 용서함 받은 기쁨, 하나님을 소유할 수

“그 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니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와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으리니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상에 알게 할지이다 시온의 거민이 소리를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라 할지니라”(사 12:1-6)



이종운 목사

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접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독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신 우리는 가장 놀라운 복을 소유했으니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으며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한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힘이라고 고백합니다. 언약을 주신 주 여호와를 자신의 힘으로 삼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 영광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출 15:2).

3.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께 부르는 노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눈으로 보면서도 계속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반석을 쳐 물을 내게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갈한 목을 축이셨다고 주석하셨습니다(고전 10:4).

우리가 사는 세상을 광야라고 합니다. 사막과 같은 세상을 걸어가는 우리는 때로 힘이 듭니다. 걸음이 무겁습니다. 목이 마릅니다. 갈한 목을 축이지 못하고 때로는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버려진 생명과 같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반석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 주신 것입니다. 이

있게 된 기쁨(시89:15),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된 기쁨(요16:22),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기쁨, 소망 중에 갖는 즐거움(벧전1:3, 6), 보지 못한 예수를 믿음으로 증거하는 즐거움(벧전 1:8)을 우리는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4. 하나님 홀로 구원하심을 높이는 노래

우리 구원은 하나님 홀로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만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리며 이 일을 온 세상에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영원히 할 일은 하나님을 높이는 일과 하나님을 온 세상에 알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전파하는 일은 교회가 세상 끝날까지 계속해야 할 중요한 사명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만 받으셔야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여호와와 크신 분임을 소리 높여 증거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첫째,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 전도해야 합니다. 그 이름을 선포하라 하셨으니 전도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한 기쁨과 환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와 전도와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돌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지상통행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교회

■...이 글은 9월 14일(월) 목회자신학세미나 제 2교시에서
유경재 목사(안동교회)가 강의한 것을 요약한 것임 ■

마태복음 산상설교 마지막 부분인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 말씀에 보면,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 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물러가라' "고 하였다.

만약 마지막 심판 날에 우리의 믿음이 모두 헛된 것이었다면 이처럼 허무하고 절망적인 일이 없을 것이다. 주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행하였어도 그것이 인정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아니면 그 뜻과는 상관없이 나가고 있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예수는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

하나님의 통치의 실현을 선포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나라가 어떤 '공간'이나 '지역'을 의미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초월한 모든 피조물의 세계를 다스린다는 뜻을 포함하기 위함이다.

그 나라는 종말론적인 성격을 지녔다. 세계의 종말이 오고, 하나님의 새로운 미래가 도래할 것이라는 대망의 역사적 자리에서 예수님은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 나라는 현재의 역사 속에 실현되고 있음을 또한 강조하셨다.

예수님의 궁극적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계 속에 실현하는 것이지, 세상 속에서 불려낸 자기의 제자들을 따로 교회로 세워 구별하려 하신 것은 아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사역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그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실현에 있다는 것이며, 교회는 이를 위해 존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바울의 신학적 입장을 통한 신학의 방향을 고찰한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믿음으로 모든 사람은 의롭게 된다"는 전제를 내세운 뒤에 1장에서 이방인들의 죄를 철저하게 파헤쳐 보이고 이

어서 유대인들이 율법과 할례를 가졌다고 자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보다 하나도 나은 것이 없는 죄의 상태에 있음을 2장에서 지적하였다. 그리고 3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선언하였다.

바울은 이와 같이 모든 인간을 죄의 자리로 끌어내린 다음 여기에 그리스도의 구원을 제시하였다. "믿음으로 모든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는 바울의 신학은 모든 인간의 평등함을 가능케 하는 놀라운 인권 선언이라 할 수 있다. 그의 이런 신학은 그로 하여금 율법이 가로막고 있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차별을 철폐하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책망장서게 하였다.

하나님의 통치를 전제로 할 때 교회는 세 가지 신학적 의미를 수용하게 된다. 첫째로 교회는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분별하는 신앙을 갖게 될 것이므로, "영적 공동체"라 할

수 있다. 둘째로, 교회는 "역사" 안에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분별하면서, 그 역사를 긍정하면서 역사에 대한 새로운 책임의식을 가진다는 뜻에서 "역사적 공동체"이다. 셋째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증언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시고, 그리고 다시 일터로 내보내시는 "종말론적 공동체"가 될 것이다.

"진정한 교회란 역사의 삶 속에 임재하는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그의 뜻을 신앙으로 분별하는 사람들이 자기 혼자만의 구원과 축복이 아니라 이 역사를 살아가는 이웃 모두와의 공동운명의식과 책임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 헌신한 공동체이다"

구체적으로 교회는 어떻게 바뀌어져야 할까?

- 1) 목사와 교회 지도자들의 의식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2) 권위주의적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교회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 3)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분별할 수 있는 영성 개발을 힘써야 할 것이다
- 4) 개교회주의 목회를 탈피하여 교회 연합과 일치성을 지향하는 목회를 해야 할 것이다.

목회자신학세미나현장에서

"겸손히 주 섬기는 법을 배웁니다"

윤찬오(집사, 10교구, 목회자신학세미나 봉사자)

목회자신학세미나가 시작된지 벌써 7년의 세월이 흘러 현재는 14번째 학기가 진행 중이다. 모든 개혁은 앞을 향해 가는 것이지만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 교회 갱신을 이루어 보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다.

이 세미나가 지속할 수 있었던 데에는 남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배우시겠다는 마음으로 멀고 가까움을 아랑곳 하지 않고 전국에서 수강하기 위해 오시는 목회자 여러분들과 이종운 목사님을 비롯한 강사님들의 수고가 있었다. 그러나 그에 못지 않게 보이지 않는 손길들의 사랑과 섬김과 실천적 봉사가 큰 힘이 된 것도 사실이다.

특별히 목회자들을 대접하고자 월요일 새벽이면 어김없이 김밥을 만드시는 권사님들의 수고는 눈물겹기까지 하다. 좌골신경통, 만성두통, 관절염, 고혈압, 당뇨 등으로 육신은 연약하지만 하지만 머리 수전에 앞치마를 두르시고 야채 다듬고 조리하기 지만 부끄

기, 밥짓기, 김밥 말기, 정리 정돈에 이르기까지 일사불란하게 한치의 소홀함 없이 협력하시는 모습을 늘 존경스럽게 바라보게 된다. 집이 먼 권사님들은 주일 예배를 마치면 교회에서 밥을 새면서 월요일 새벽 봉사할 시간을 기다리시기도 한다. 그리고 월요일이면 김밥이 만들어지는 옥탑층에선 미소를 머금은 밝은 얼굴로 부르시는 권사님들의 찬송소리가 그치지 않는다. 그 정성은 목회 현장에서,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지치신 목회자들의 몸과 영혼에 매주 큰 힘이 되고 있다. 권사님들 앞에 설 때면 언제나 머리가 숙여지고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러 오신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내 안에 더욱 가득히 담아 보고 싶다는 열망이 생기게 된다.

모쪼록 이와 같이 기쁨으로 섬기는 모습이 온 교회에 확산되어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봉사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종을 섬기고, 이웃과 세계를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비전2020운동 참가자

이 은혜 다함께 누렸으면...

탁경준(집사, 5교구)

산본, 안양, 과천, 의왕, 평촌, 군포, 수원... 우리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5교구 식구들이 지난 토요일 동반 전도를 위해 모였다. 거리가 멀다 보니 복잡한 토요일 오후에 참석하는 일 자체에 그야말로 헌신하는 마음이 많이 필요했다. 기쁨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하나님도 기뻐하셨으면...

마침 교회에 결혼식이 있어 하객 중 믿지 않는 이들에게 전도지를 나누며 주님을 전했다. 교회당에서부터 시작된 전도는 청계산 입구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우리가 천국시민의 긍지를 가지고 청계산 주변을 청소도 하면서 동시에 복음을 전하니 전도지를 받아드는 이들의 마음이 한결 더 부드러운 것 같았다.

동반 전도 후 또다시 결혼식이 있어 전도에 참가했던 교구 식구들이 다시 하객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했다.

평소 잘 하지 못하던 전도를 해본 것도 귀한 체험이었지만 그간 가깝게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던 교구 식구들의 얼굴을 맞대고 보

면서 그들의 가정사를 듣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도 참 감사할 일이었다.

동반 전도 뿐 아니라 연속 기도회, 새벽 특강 등 이번 비전2020운동에 여러 모양으로 참여하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슬 같은 은혜를 맛보고 있다. 특별히 진행 본부에서 보이지 않게 수고하시는 임직원들을 보면서 그들의 믿음의 분량이 너무도 크다는 생각이 든다. 진행을 맡은 어떤 집사님은 부득이하게 이 기간 중 해외 출장을 가셨는데 국제전화를 통해 일일이 점검하시는 충성스런 모습도 보이셨다.

우리 민족 75%를 그리스도께 인도하자는 비전을 가지고 추진하는 이 운동은 몇 사람의 힘만으로는 이룰 수 없다. 아직 이 운동에 무관심하신 성도가 있다면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고, 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여러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운동에 핵심적 인물이 되어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하나도 놓치지 말았으면 한다.

주님, 이 생명을 구원에 주옵소서!

'98 비전2020운동 태신자 명단 (다음 호에 계속)

전도자	태신자
이순례	김상복 김해숙 김보강
신정순	남정현 나혜순 남경환 남누리 남달리 신용현 박영금 유영순 신용달 신병옥 신용보 신남섭 고영미
서춘식	지승원
최순희	최광수 이미숙 최소정 최연정
최순애	안영철 임복순 안송이 안성혁
탁경준	이상동 이정웅 변삼현 전무광 신학진
심재율	심재수 허규택
조정옥	조복혜 김용희 강봉례 조길행 이순덕
오정수	박관순
김세재	김학민 민원식 김세철
김재술	마유송 마유석
박정수	민영옥
양인수	이승관
김양숙	김용수 김선희
이운진	지남진 김화순
전수자	서정혜

잃은양 찾기 운동 대상자 명단(다음호에 계속)

부서	대상자
고등부	신혁수 이강욱 이주연 김현승 정성훈 허진수 백혜진 김명근 박은혜 정준호
초등부	김태원 이채은 송소라 석근후 김지혜 안승민 서연호 장명수 심해진 김수현 최유경 한정우 한진우 김인우 김정옥 남재우 우예지
6교구	이승래 김정희 박태성 김수정 진승복 성철홍 신현옥 김동균 최정희 김운태 신숙희

동정

◇ 이종운 목사는 5일(목) 오후 3시 연세대 루스 채플에서 열리는 연세신학공개강좌에 강사로 초청되어 "예수와 바울 - 바울 복음의 기원 문제를 중심으로"라는 제하의 논문을 발표한다.

◇ 이종운 목사를 비롯, 총대 11명은 3일(화) 소망교회당에서 열리는 서울강남노회 제 23회 정기회에 참가한다.

◇ 피택 장로들은 선배 장로들을 초청하여 지난 31일(토)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 김복희 집사(3교구)는 대치 4동으로 이사했다(☎ 538 - 2790).

◇ 이훈 · 김인숙 성도(3교구)는 대치동 청실아파트로 이사했다(☎ 511 - 1226).

◇ 오늘 점심식사는 김영우 성도가 가정에서 제공했다.

부서 소식

◇ 중등부 찬양대는 지난 24일(토) 은무리교회당에서 개최된 강남노회 중 · 고등부 연합회 주최 제 11회 찬양제에서 합창부분 금상을 수상했다. 이 대회에는 강남노회 소속 13개 교회의 중 · 고등부 찬양대가 참가 했다.

◇ 대학부는 1일(주일) 오후 1시에 대학부실에서 정기 총회를 연다.

◇ 청년부는 1일(주일) 오후 2시에 청년부실에서 정기 총회를 연다.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아세아방송(HLAZ 1566KHz)	라디오 강단	주일 오전 8시 30분 ~ 9시
	새벽의 강단	금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찬양의 시간이 매주일 오후 4시부터 50분간 1층 예배실에서 열립니다.

서울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비전2020운동을 위해
2. 전교인 성경임송대회를 위해
3. 제 14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와 제 4학기 서울성경대학을 위해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교회위치

